



|                             |               |     |
|-----------------------------|---------------|-----|
|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               | 다함께 |
|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               | 다함께 |
| 기도 Prayer                   |               | 장헬렌 |
|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               | 다함께 |
| *성경봉독 Scripture Rec         | 누가복음 23:44-49 | 다함께 |
| 교회소식 Announcement           |               | 유형선 |
| 말씀선포 Sermon                 |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  | 유형선 |
| *찬양 Praise                  |               | 다함께 |
|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               | 유형선 |

주일대표기도

|         |               |
|---------|---------------|
| 3/22/26 | 3/29/26(고난주일) |
| 최성호     | 서경열           |

예배시간안내

|        |                              |
|--------|------------------------------|
| 주일예배   | 오후 2시 (분당)                   |
| 수요성경공부 |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
| 아침묵상   |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오늘 본문에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십자가 아래의 모습과 십자가 위의 모습으로 대조해서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십자가 아래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병사들을 비롯해 유대인들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급합니다. 그들은 기적의 논리로서 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진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언제나 오늘이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논리로 바라보거나, 윤리와 도덕의 시선으로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선은 십자가 위의 시선입니다. 십자가 위에 있던 두 강도 역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양 옆에 두 명의 강도를 함께 매달으셨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강도는 무언가를 훔치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를 훔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삼아 버린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생토록 한 일이라고는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삼은 일 밖에 없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강도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가 결국에는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존재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강도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허락된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아래에 있던 자들이나 십자가 위에 있던 자들이나 모두가 소경이요 강도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허락된 강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낙원을 허락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낙원이 어디입니까? 그 낙원은 장소와 시간의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즉 십자가 위가 비록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사로잡히는 순간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낙원임을 성경을 보여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가 낙원이요 천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